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선물'...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음악·춤으로 순국선열 숭고한 정신 기억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무대가 마련됐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198회 정기연주회 '선물'을 개최한다.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평화를 향한 굳은 신념과 지질 줄 모르는 행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값진 '선물'이었는지 표현하고자 한 공연이다.

심포니송오케스트라·빛고을댄서스 협연
남성·여성합창 무대로 위로와 희망 선사

이날 무대에는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와 빛고을댄서스가 함께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선사한다. 1부는 라트비아 출신 음악가 바스크스가 작곡한 '침묵의 열매'와 '기도, 우

리의 눈을 여소서'로 막을 올린다. 마더 테레사 수녀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곡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조건 없는 연합과 공존을 기원한다. 현악 앙상블 특유의 부드러운 흐름과 함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작곡가 조혜영의 '못 있어' 무대가 펼쳐진다. 우리나라 최고 서정시인이라 할 수 있는 김소월의 시 '못 있어'를 편곡한 작품으로, 아쉬움과 그리움의 뜻을 담은 기억의 편린들을 하나씩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다음으로 작곡자 칼 젠킨스의 곡 'Kyrie & Benedictus'가 서정적이고 감미로우면서 비장하고 장중한 음색으로 영혼을 숙연하게 한다. 끝없는 사랑

으로 가득한 평화와 축복을 노래하며 1부를 마무리한다. 2부에서는 봄날의 목가적이고 여유로운 풍경을 묘사한 곡 '바람은 남풍'(김동환 시)과 어려움 속에도 희망을 찾길 바라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돼라' 곡이 여성합창으로 펼쳐진다. 이어지는 무대는 남성합창 무대다. 나폴리 민요를 밝고 활기차게 편곡한 작품 '푸니쿨라, 푸니쿨라', '스페인 아가씨', '라쿠카라차'를 차례로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가을 큰 반응을 얻은 'Grease—A New Broadway Medley(그리스)' 무대가 관객들을 다시 만난다. 이번 연주에서는 초반 음원을 사용하며 최근 뜨겁게 부상하는 스트리트댄서 스타일의 빛고을댄서스가 협연한다.



범능 정세현 10주기 추모 음악회

오는 17일 전남대 컨벤션홀
광주 민중음악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정세현(범능스님) 10주기 추모 음악회가 열린다. 범능 정세현 10주기 기억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고 (주)에프에이모스트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추모음악회는 오는 17일 오후 6시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그는 '님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5월 광주를 대표하는 노래 '광주출전기'를 만들었다. '농민'과 '통일' 등 50여곡에 이르는 수많은 민중가요를 만든 창작자이자 국악가요에 한 획을 그은 문화운동 선도자이기도 하다. 이날 음악회는 정세현이 만든 노래

들로 꾸며진다. 전남대 '노래패 햇소리', 조선대 '노래패 함성',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노래운동단체 '노래패 친구', 1990년 국악가요운동단체 '우리소리연구회'와 더불어 지역 젊은 음악가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고인을 추모한다.

특히 악보는 남아있으나 음원으로 발표하지 않은 노래 '열목어 한 마리'와 악보조차 없어 알려지지 않았던 노래 '아침노을'(1951 거창유아학살 추모가)을 작사가인 고규태 시인의 증언으로 발굴해 이날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정세현의 친구인 이상호 화백은 고인의 초상화와 음악 이미지 삽화를 그려 헌정했으며 많은 예술 운동 동지, 선후배들을 비롯해 200여명의 추진위원과 추진단체들도 힘을 보탤다. /최명진 기자

ACC영유아공연

걸음마 떼 우리 아이, 생애 첫 연극 만나다

여유비 내리는 여름 한낮, 일상이 꿈처럼 열리는 순간을 배우들의 움직임과 클래식 기타 연주로 선사하는 공연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ACC 어린이극장에서 생후 10-18개월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공연 '꼭 하고 들어갔다'를 선보인다. 50여분 동안 아이들은 극장의 냄새와 소리, 조명, 낮은 천장에 적응하고 다양한 감각적 요소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생애 첫 연극 관람의 경험을 갖게 된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영유아극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창작됐다. 문화예술교육 및 연극놀이 전문가인 양혜정 연출을 중심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타키와 타키'가 공연 제작을 맡았다. 배우와 음악감독 등 어린이·청소년극 창작자들은 2020년부터 36

개월 이하 아기 관객과 만나는 연극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영·유아극 포럼, 시범공연 등 과정을 거쳐 작품을 최종 완성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영유아부터 노인, 장애인, 비장애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모두를 위한 극장'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며 "아이들이 낮은 극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발견하는 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연은 16-18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총 6회 진행되며, 관람권은 ACC 누리집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2023 북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오는 17일 북구종합체육관
이마련됐다. 댄스와 우크렐레 등 어린이 공연, 기타공연, 중국댄스팀의 무대가 펼쳐지며 액자·팔찌·키링·그립톡·손수건패인팅 등을 만드는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각국 나라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음식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사진 접수하는 선착순 150명에게는 음료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북구가족센터(062-526-6004)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